

맞춤형 일자리 창출 나선다

순창군, 고용위기 해소 위해 6월 9일까지 관내 기업체 140개소 대상 일자리 수요 조사 실시

순창군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달 9일까지 3주간 일자리 수요 조사를 실시해 관내 기업체의 채용정보를 파악하고 군에 거주하는 청년, 중장년층 등 구직자들이 공유해 취업 채용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 조사는 농공단지 등 순창군에 등록된 기업체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업체의 인력 채용 계획에 대한 채용시기, 규모, 직무 분

야, 갖추어야 할 자격 등을 항목별로 파악하여 자료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군은 구직자와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고용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 정책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구인·구직자의 신뢰성 있는 정보 관리를 통해 수요별 인력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창군 일자리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 정보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즉시 취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일자리 수요 조사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군민과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상호 연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일거리가 풍성한 순창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원하는 일직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인·구직 상황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기”

순창군,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지원 ‘구슬땀’

순창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 영농 추진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6월 30일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50여명의 복숭아 봉지 싸우기를 시작으로 장기와 병 농가, 고령농가, 여성농가, 형편이 어려운 농가 등을 선정해 각 실과 소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농작업으로는 과수 열매 솎기와 봉지 싸우기, 오디·복분자·블루베리·매실 등 수확, 고추 지주목 설치, 딸기 묶는데 제거, 기타 폐비닐

및 농약병 수거 등 단기간에 일손이 많이 소요되는 농작업과 농촌 생활환경 주변 정리 작업 등이 해당한다.

또한 군은 공공기관, 시민단체, 군부대, 기업, 농촌사랑 동행순찰 협약단체 등이 농촌일손 돕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일손돕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와 봉사 희망 단체간에 신속한 알선으로 일손부족으로 애로가 있는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일손 돕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국민관광지 관촌 사선대... 붉은 양귀비꽃 '만개'

임실군, 주민·관광객들에 붉은 사랑빛으로 아름다움 선사

꽃들이 가득 피는 5월, 국민관광지 관촌 사선대에 붉은 양귀비꽃이 만개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사선대 옛 강수영장을 사이에 두고 전설적 미인으로 알려진 양귀비처럼

꽃 역시 아름다운 자태의 이국적이고 화려한 풍경으로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붉은 사랑빛으로 맞이하고 있다.

녹색 도화지에 빨간색 물감으로 그림을 완성해 놓은 듯 보면 볼수록 매력되어 가는 양귀비의 강렬하고 붉은

색이 가꾸어진 길 따라 한바퀴 둘러보면 마음도 따뜻해지는 기분이 든다.

사선대는 곳곳에 앉아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의자들이 놓여 있어 잠시 쉬며 붉은 잔디광장에서 아이들과 뛰놀며 5월 가정의 화목함을 느끼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물 위에 비추는 운서정과 주변의 노란색 야생 꽃창포와 붉은색의 양귀비꽃이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멋진 풍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군은 임실을 전방에도 꽃양귀비가 만개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붉은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임실을 수정교부터 임실교까지 이어지는 임실천변 1.1 km 구간에 꽃양귀비가 활짝 피어 붉은 물결로 화려한 장관을 이루며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상영

순창발효테마파크 내 푸드사이언스관에서 미디어아트 기획전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Now You See Me)'가 지난 28일부터 상영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가 주최한 공동 협력 전시에서 선정돼 마련됐으며 오는 10월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ACC 콘텐츠를 전시해 테마파크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작품 감상 후 사진과 함께 감상평을 본인 인스타그램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그 너머의 공간으로의 초대' 창작자 이수진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다양한 색깔로 표현하는 작가로, 작가의 비비드한 색깔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작가가 창조해낸 무궁무진한 세계를 몸소 체험하게 만들 것이다.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운숙 대표는 "이번 협력 전시가 복합문화공간인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상영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제공해 순창발효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에게 재밌는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기자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시상식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한 제26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시상식이 지난 28일 남원 안축선명초등학교에서 열렸다.

행사는 남원시립국악단의 흥겨운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상장 수여, 내빈 축사, 수상자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은 전통 옷칠목공예에 문화 계승 및 목공예 산업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옷칠 목공예와 같이

부문으로 접수받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37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국무총리상)은 박미란(안산시)의 '십장생문 나전 장식장'으로, 백골에 삼배를 감싸고 옷칠을 여러 번 올려 장식하는 목심저피칠기 기법으로, 십장생을 자개와 철분으로 장식해 생동감을 주고 흑칠마감으로 깊이감을 나타낸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됐다.

금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 옷칠 목공예 부문에 정기환(서울시,



고려 담초문 차잔 세) △갈이 부문에 송지수(공주시, 꽃을 꿈꾸다)가 선정되는 등 총37점(옷칠 목공예 부문 27점, 갈이 부문 10점)의 우수작품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보건소,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남원시보건소 소장 한용재는 여름철 조기 방역태세를 갖추고 모기로 인한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취약지역 및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본격적인 방역에 앞서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읍면지역에 방역 약품 배부 및 각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수리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성충구제에 비해

구제 효과가 높은 유충구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소화전, 연못, 정화조에 정기적으로 친환경 약제를 이용하여 유충구제에 힘쓰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랑의 광장 심수정, 요천변, 춘향골체육공원 등 가로등에 친환경 해충 유인퇴치기 90대를 가동 중이며, 도심 공원 등 인구밀집지역과 취약지역 마을은 차량을 이용한 연무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매개체 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임실군이 2023년도에도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플러스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출산·수유 등에 따라 영양불균형과 같은 영양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사업이다.

맞춤 영양교육, 영양지원을 통해 영양 문제를 해소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만 6세(7개월까지) 이하의 영·유아 중 영양 위험 요인(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이 있는 주민으로 신규대상자 접수 후 소득 확인 및 영양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실=진홍영기자

남원소방서, 아파트 피난소방시설 알파고 구축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최근 관내 아파트 피난·소방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아파트 피난·소방시설 알(아)보고' 피(Find: 찾아보고) 고(고)수(수)기'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아파트 피난·소방시설 알파고'를 클릭하고 아파트 이름을 입력하면 아파트 옥상 형태, 옥상 출입문 위치, 피난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안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쉽게 '우리아파트 피난·소방시설 알파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 또는 동별 출입구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남원소방서는 화재 없는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해 나라 방심"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